

할 수 있을 때 준비하라

Be Prepared While You Can

마태복음 25:1-13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11월 3일 설교

¹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²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³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⁴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⁵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⁶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⁷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⁸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⁹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¹⁰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¹¹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¹²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¹³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 명의 처녀

예수님 당시 유대인 결혼식은 신랑 집에서 시작됩니다. 해가 지면 신랑이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 집으로 갑니다.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 신부를 들것이나 가마에 태워 신랑 집으로 다시 갑니다. 신랑 친구들은 가마를 메겠지요? 신부 들러리들도 같이 가고 다른 친구들도 어울려 많은 사람이 같이 갑니다. 그렇게 행렬을 이루어 신랑 집으로 가서 거기서 성대한 결혼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결혼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녀 열 명도 같이 나오는데 뭐 하는 처녀일까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신부가 열 명일 수는 없겠지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한 걸 보니 신부 들러리일까 싶은데 만약 들러리였다면 필요한 물건을 신부의 부모가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들은 등불이랑 기름을 직접 준비했으니 들러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부의 하녀들일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를 보아서는 결혼 당사자와는 직접 연결이 안 된 사람들 같습니다. 당시 결혼식에서는 초대장을 안 받은 사람이 신랑이 신부를 모시고 가는 이 행렬에 끼여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특히 등불을 들고 길을 밝혀준 사람이라면 거의가 환영을 받았습니니다.

본문에 나오는 열 명의 처녀는 결혼식에 초청은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이 아주 성대한 결혼식이어서 잔치에는 가고 싶었습니다. 처녀 마음이었겠지요? 그래서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등불이라 했는데 사실은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일종의 램프입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고 베로 심지를 만들어 장대에 매단 그런 램프입니다. 그 램프로 신랑신부 행렬을 밝혀 준다면 결혼잔치에 가서 잘 먹고 마시고 춤도 추면서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두 부류의 처녀

그렇게 나온 처녀가 열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섯이 램프만 준비한 반면 나머지 다섯은 램프에다가 여분의 기름까지 그릇에 담아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램프만 준비한 처녀를 미련하다 하시고 기름까지 준비한 처녀를 슬기롭다 하십니다. 왜 그럴습니까? 램프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램프에도 기름이 담겼으니 상당히 가긴 하겠지만 신랑이 더디 와서 결혼행진이 늦어진다면 램프에 있는 그 기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신랑이 만약 좀 일찍 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름까지 준비한 처녀가 오히려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었겠지요. 램프만 해도 짐인데 기름을 담은 그릇까지 달고 다니기가 어디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신랑 행차가 늦어졌습니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얼마나 늦어졌는지 기다리던 열 명이 다 꾸벅꾸벅 졸다가 아예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 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해진 다음에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이 날은 늦은 시간까지 신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던 사람들이 잠이 드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다!” 잠이 확 깨겠지요?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이제 램프를 들고 달려 나가면 됩니다. 아 그런데 눈을 떠 보니 램프가 죽어갑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램프가 없으면 잔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한 처녀들은 램프에 기름을 더 부으면 됩니다. 준비를 안 한 처녀들은 다급한 마음에 기름을 가진 동무들한테 좀 나누어 달라 합니다. 하지만 기름을 무슨 드럼통으로 준비한 것도 아니고 본인 쓰기에다 빠듯합니다. 나누

어주었다가는 둘 다 중도탈락이겠지요? 그래서 그냥 기름집에 가서 사 오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미련함과 슬기 사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하여간 우리 주님 비유 말씀은 한 대목 한 대목 기가 막힙니다. 신랑이 도착하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일찍부터 나와 기다렸는데 신랑이 도착하는 그 순간에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이 왜 신랑이 오는 그 순간 떠나야 됩니까? 기름을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만약 안 자고 있었다라면 햇불이 간당간당할 때 얼른 가서 사왔겠지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햇불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밖에서 기다렸는데 기다리던 그 순간이 왔을 때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참 기막힌 상황이지요.

안 가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햇불이 꺼진다면 거기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초대도 못 받은 형편에 그 정도도 못 해 가지고는 잔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금방 올 줄 알면서도 기름을 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련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안 생기게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애초에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왔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다 자고 있을 때 신랑이 왔고 깨자마자 햇불이 죽어간다는 걸 알았고 신랑이 올 줄 알면서도 기름을 사기 위해 자리를 떠나 했습니다. 신랑을 위해 준비한 햇불인데 정작 신랑이 없는 동안에만 활활 타오르고 신랑이 도착할 즈음에는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렸으면서 신랑이 도착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된 거기 다섯 처녀의 미련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시작된 결혼잔치

신랑이 도착하자 결혼행렬이 시작됩니다.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태우고 가고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갑니다. 신랑 친구도 있고 신부 들러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가다가 눈이 맞기도 하지요. 결혼식에 초대받은 손님들도 함께 갑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도 후시나 하고 같이 갑니다. 동네 거지들도 당연히 같이 가겠지요. 초대받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들어가기 위해 별도의 준비를 한 사람도 있는데 햇불을 준비한 열 처녀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섯은 기름을 사러 가고 없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햇불을 들고 행렬에 동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신랑 집에 도착해 결혼잔치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신랑 집 문이 닫혔습니다. 상황이 끝났지요. 기름을 사러 갔던 다섯 처녀가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 식으로 바꾼다면 “어르신, 어르신, 문 좀 열어 주세요.” 어르신 하고 부르는 걸 보면 신분의 차이가 제법 있어 보입니다. 혼주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다섯 처녀가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겠지요. 나이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혼주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난 너희들을 모른다.”

혼주의 반응을 볼 때 정말로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다섯 처녀 입장에서는 결혼잔치에 참여하려고 햇불도 준비하고 저녁 내내 기다리고 나중에는 가서 기름까지 사왔지만 혼주 입장에서는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혼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초대도 안 받은 사람이 뒤늦게 와서 넣어 달라 하니 당연히 안 된다 하겠지요. 만의 하나 이들이 신부 측 들러리였다면 혼주가 화가 많이 났겠지요. 결혼식을 멋지게 하자고 들러리를 열이나 세웠는데 제대로 준비를 안 해 햇불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말하자면 결혼식을 망친 장본인들입니다. 그러니 뭐가 반가워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난 너희들 모른다!” 분노에 찬 주인의 반응인 셈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야기를 끝내며 주님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교훈은 한마디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말이면서 또한 용의주도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훈을 주실 때 하신 첫 말씀이 “그러므로”입니다. 방금 들려준 그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게 뭔지 비유에 나옵니다. 특히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서 깨어있는 게 뭔지 배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면 어떤 게 안 깨어있는 건지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럼 깨어 있는 겁니까? 비유를 보니 일단 잠을 안 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신랑이 늦게 오자 열 명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뿐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도 잠을 잤습니다. 햇불도 다 준비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기름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만 기름을 준비했으니 기름을 준비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볼 때 조심해

야 됩니다. 햇불은 뭘 가리키고 기름은 또 뭘 뜻할까,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준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결혼 잔치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예비된 자들”이 들어갔습니다. 준비를 잘 갖춘 자들입니다. 그게 슬기로운 겁니다. 준비를 하되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처음 햇불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피곤해 잠이 들기 전이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면 기다리다가 잠이 들겠지요? 일단 잠이 들면 그 뒤에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신랑이 오면 큰 소리로 알려줄 것이니 잠에서 깨겠지만 그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하시고는 깨어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 시는 비유에서는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깨어있어야 하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과 시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알기만 하면 알람 맞추어 놓고 신나게 놀아도 되겠지요. 오시기 조금 전에 정신 차리고 기름을 사 오면 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미리 준비해야지 안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준비한다고 법석을 떨다가 천국 잔치에는 못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그 때에”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앞으로 가 보아야겠지요.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 주님은 당신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에 대해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깨어있으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를 모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마치 밤에 도둑이 들 듯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준비하는 방법은 뭐니까? 비유에서는 햇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겠지요? 간단히 말하면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일입니다.

준비하는 마음

미련하고 슬기로운 게 뒤집어질 수도 있다 말씀드렸지요? 신랑이 일찍 왔더라면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햇불만 준비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이 설령 일찍 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기름이 필요 없었다 해도, 햇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십 세기 들어 사회과학이 발달하면서 결정이론 (Decision Theory)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알 수 없는 게 미래 아닙니까? 그런데 수학이나 통계학 같은 걸 이용하면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지만 나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여러 가지 변수를 검토하면 상당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 같은 일에도 그런 자료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앞날의 일을 확실하게 안다면 준비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미련하고 슬기롭고 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앞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준비가 더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써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갈립니다.

앞날의 일을 준비할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첫째 최상의 결과를 노리고, 둘째 최악의 상태를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상의 결과는 최소한의 준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일일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경우라면 햇불만 간단히 준비했는데 신랑이 일찍 와 준 경우가 되겠지요. 그러면 기름 사는 돈도 아끼고 기름통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도 없이 기대하던 잔치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뭐니까?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치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햇불만 준비했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도 피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기름도 따로 넉넉히 준비해야지요. 물론 햇불만 준비하는 것보다 돈도 더 들고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기름을 준비 안 해 낭패를 당하는 것보다 기름을 준비해 번거로운 게 훨씬 낫지요. 기름 들고 다니는 건 조금 귀찮은 일인데 그 귀찮음을 피해 버린다면 대재앙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태를 미리 예상하고 방지하지 못한 것이 다섯 처녀의 미련함이었습니다.

준비하는 슬기

요즘은 사회가 워낙 복잡해 결정이론 자체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바라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것이 지혜입니다. 목표가 뭐니까? 햇불을 왜 준비합니까?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하나 위해서 햇불도 준비하고 신랑이 올 때까지 햇불 하나 붙들고 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립니

다. 그러니 준비할 때는 어떤 사태가 생기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준비해야 됩니다. 햇불은 기름으로 탑니다. 신랑이 언제 올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기름을 준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에이 귀찮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애초에 햇불은 뭐 하러 준비합니까?

오늘 살핀 이 비유는 주님 재림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 하늘로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먼 훗날 그 사람도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말하자면 준비과정입니다. 태어나 자라고 그러다가 늙어 죽는 게 인생인데 그 자체로만 본다면 참 허무한 인생입니다. 오래 살아야 수십 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도 기쁨과 행복보다 걱정, 슬픔, 괴로움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갈 인생이라면 안 태어난 것보다 나을 게 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생 하나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준비과정이라는 걸 알면 달라집니다. 무슨 준비과정입니까? 영원으로 가는 준비과정입니다. 인생 짧지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을 발견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뜻입니다. 그 길을 발견하기만 하면 아무리 짧아도 허무하지 않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아무리 많아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

인생은 말하자면 도박입니다. 로또 안 해도 도박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확실한 것을 투자합니다. 공무원 시험, 사법시험, 회계사 시험, 이런 걸 앞두고 몇 년을 공부합니다.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같은 차원이지요. 수천 개나 되는 실험실에서 오늘도 과학자들이 밤을 새웁니다. 연구개발이라 하지요?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기업에서는 돈을 대고 사람들은 주식을 삽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도 하고 노후를 위해 돈도 모아둡니다. 인생의 지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앞날에 대한 준비를 알뜰하게 하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앞날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영생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지요. 이 한 목숨 죽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몇 년 뒤, 몇 십 년 뒤에 있을 일은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취하면 영원히 행복합니까? 아니지요. 겨우 몇 달, 어떤 경우는 며칠도 못 갑니다. 그런 만족 얻자고 몇 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영원의 운명이라는 이 엄청난 미래에 대해서는 준비도 안 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코웃음을 칩니다. 알아볼 생각도 않고 말입니다. 이성을 가졌다는 인간, 합리적인 인간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혜라 하십니다. 핵심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렇게 믿은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뒤늦게 문을 두드리겠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을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니까? 그 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당연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몇 시간 뒤에 오실지 몇 년 뒤 아니면 몇 백 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난 뒤 오실 가능성이 사실 더 큼니다. 그런 경우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날과 그 시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 날 내가 죽는 그 시간이 됩니다. 일단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준비도 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지만 죽으면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깨어있는 일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하고 오직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준비의 시간이 잠시 주어진 다음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 다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때는 준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잠에 빠지기 전에 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는 안 믿던 사람도 믿을 기회가 있습니다. 안 믿은 채 죽는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요. 죽는 순간까지 주 안에 있었으니 준비가 완벽합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셔도 통에 가득한 기름을 부어 결혼 잔치까지 즐겁게 행진할 수 있습니다.

열 처녀의 신분이 좀 애매하다 했지요? 이 비유에서 주님은 신랑은 네 번이나 이야기하시면서 신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십니다. 이상하지요? 그런데 비유의 결론을 보니 그 결혼잔치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게 될 잔치랍니다. 그럼 신랑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럼 신부가 하나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주 예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 열 명의 처녀는 결국 우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는 걸 확인하고 주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혹 아직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거나 기름을 준비했다 싶으면서도 웬지 자신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숨 쉬고 있는 동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깊은 잠에 빠지기 전에 얼른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신랑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 같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권수경 목사)